배우 박중훈의 연기 패턴 분석 및 인물 표현 방식 연구

-영화<내 갱패 같은 애인>에서 동철(박중훈)역 중심으로-

Acting Pattern and Character Expression Methodology

of Actor Park Jung Hoon

-In-depth analysis of Park's Character, Dong-Chul, in the Movie <My Dear Desperado>-

어일선, 정민영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영화과

Il-Seon Eo(filmeo@naver.com), Min-Young Jeong(generalj87@gmail.com)

요약

박중훈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 후 바로 영화 현장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영화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 배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연기를 이쯤에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본고에서는 그의 연기에서 독특한 몇 가지 패턴을 찾아내고, 내면적 연기가 가장 잘 되었다고 평가되는 영화 <내 갱패 같은 애인>에서 동철 역을 중심으로 인물 표현 방식의 개략적인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그의 연기 패턴은 크게 박중훈식 코믹연기, 마초적 남성성의 표현연기, 잘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연기로 구분하였고, 영화 <내 갱패 같은 애인>에서 동철 역의 인물 표현 방식은 엉터리 삼류 갱패 역할부터 착한 내면을 지닌 남성으로 변화되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 그의 연기 기술을 분석해보았다. 아울러 불가능한 거리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만의 연기 기술도 찾아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영화배우들의 다양한 인물 표현 방식 연구와 그들의 훈련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싶으며, 이를 통해 많은 배우들의 연기 훈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중심어 : | 연기 | 배우론 | 인물 표현 방식 | 연기 기술 |

Abstract

Park Jung-hoon started his acting career in movie since undergraduate year at Chungang University, Drama and Cinema school, and till now he is a very active and nationally beloved actor in Korea. However, to this day there isn't any study about him, so this study might be the right time to take a look at his acting style again..This report will find and review his distinctive patterns in acting, and roughly assess the character expression from character, Dong-chul, in the movie, My Dear Desperado; which has been evaluated as the best movie to show the inner side of character. His acting pattern is segmented by 3 parts; Park Jung-hoon style comical acting, expression of macho side of masculinity, and subtle inner emotion expression acting. Then his acting technique is analyzed from character Dong-chul in the movie, My Dear Desperado, which he acted out change in character from low-class nonsense gangster to a good-hearted man flawlessly. In addition this report will try to find his acting technique that made impossible distance between the characters possible.This study hopes to start and continue other studies that discuss many movie actors' and actresses' different character expression method and their training technique, also wish many actors and actresses could find helpful in their acting training

■ keyword : | Acting | Actor Theory | Character Expression Method | Acting Technique |

* 이 논문은 2012년도 청주대학교 연구 장학 지원에 의한 것임.

접수일자 : 2013년 09월 26일

수정일자 : 2013년 1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07일

교신저자 : 정민영, e-mail : Generalj87@gmail.com

I. 들어가며

박중훈은 백상예술대상 5회, 청룡영화제 3회, 대중영화제 2회 등 총 14회의 수상 경력이 있는 배우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민배우라 할 수 있다.

근래 가장 많이 활동 하고 있는 송강호, 설경구, 류승룡 등이 연극으로 시작해서 영화로 연기 지평을 확장하게 된 배우라면 박중훈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 중 영화 <깜보>(1986)에 캐스팅 되어 처음부터 탄탄한 연기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영화에서 꾸준히 올리게 된 배우이다.

그러나 많은 영화제의 화려한 수상 경력과 변함없는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기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의 연기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본고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몇 가지 연기 패턴을 찾아보았으며, 그의 내면적 연기가 가장 잘 표현됐다고 평가되는 영화 <내 짝배 같은 애인>에서 주인공 동철 역을 중심으로 그의 인물 표현 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경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박중훈의 출연 작품이 너무나도 방대하기에 출연작 전부를 거론하는 대신에 몇 개의 대표작을 선정해 그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의 연기 패턴을 몇 가지로 구분해보고, 특히 제 18회 이천 춘사대상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 연기상을 받은 작품 영화 ‘내 짝배 같은 애인’에서의 동철 역을 중심으로 인물 표현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불가능한 거리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만의 연기 기술을 통해 카메라 연기의 성패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각 쇼트에 따라 사용된 영화 기술에 알맞은 연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II. 배우 박중훈의 연기 패턴

1. 인간을 담은 코미디의 표현

박중훈의 영화를 보면 그의 연기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의 코믹

연기이다. 그의 영화 중 많은 부분이 코미디 영화거나 아니면 다른 장르의 영화에서도 코미디 요소가 들어있다. 그의 영화에서 코믹 요소를 빼면 언급이 불가하다.

아래의 표를 보면 97년에 7편의 영화를 찍어내는 기업을 토하는데, 그중 5편이 코미디 영화이다.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무려 17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박중훈식 코미디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그의 코믹 연기가 장르 아닌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다.

표 1. 박중훈 출연 영화 장르(1994년~1997년)

“슬랩스틱이라든가 피지컬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코미디를 표현하는 형태라든가 용어는 많은데,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근본은 무엇보다도 지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웃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사회를 알고 시대를 알고 사람에 대한 따뜻하고 깊은 시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웃음을 바라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욕과 지성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예요. 영화가 시대를 담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코미디야말로 시대를 담고 인간을 담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허망해져요.”-박중훈 인터뷰-[1]

그는 인터뷰에서 코미디야말로 인간을 담지 않으면 굉장히 허망해진다고 말한다. 늘 웃음 지으며 익살스런 표정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를 보면 그는 분명 뻥속까지 유머와 재치가 배어있는 배우임에 틀림없다. 한때 그는 <박중훈 쇼>까지 진행을 하며 방송 예능계를 드나들 정도로 구수하면서도 재치 있는 입담과 번득이는 유머를 지니고 있다.

그의 코믹 연기는 이런 그의 생활에서 배어나온 산물

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에 관객을 즐거움에 들뜨게 하던 그의 경쾌한 코믹 연기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대표적 연기 패턴의 하나이다.

2. 마초(Macho)적 남성성의 표현

그의 연기 패턴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거칠고 시원한 마초(Macho)적 남성적 이미지다.

그는 강패, 형사 등 액션을 필요로 하는 영화에 많이 출연했다. 그의 연기에는 흔히 말하는 간드러짐이라든가 여성성이 거의 없다. 그의 연기 패턴은 마초(Macho)적 남성성이 지배하고 있다. 어떤 역할이든 마찬가지로. 형사로서도 그렇고 강패로서도 그렇고 또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로맨스 영화에서도 그 특유의 남성성과 시원함을 보여준다. 주저한다든가 판단의 유보라든가 뭉그적거림도 없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내내 줄거나 지루할 틈이 없이 경쾌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악동이었고 타인과 세상을 사랑하는 낙천주의자였다. 그러나 촬영에 들어가면 자신의 순간적인 감수성과 재치를 믿는 스타일이었다. 감독과 촬영 기사의 능력까지 파악해 내면서 어떤 각도에서 어느 정도의 표정을 지어야 제대로 찍히는가를 아는 프로였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구차스런 불만이나 짜증 같은 것을 내지 않는 배우 그러나 자기 역할은 집요할 정도로 챙기는 배우 박중훈의 진면목을 보면서 저 배우는 생명력이 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윤택-[2]

박중훈은 인간으로서의 남성성도 유명하다.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그가 보여준 다양한 재치와 남성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연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아마도 영화에서의 마초적 인간의 표현이 역지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3. 잘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표현

배우는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인물을 극중에서 어떻게 자연스레 영화에 그려내느냐에 따라 그 배우의 연기

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영화에서 가끔 어색한 표현을 하는데 그 어색함마저도 하나의 멋진 연기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1990년대 그의 코미디 연기와 마초적 연기 패턴에서 2010년대에 와서 새로운 패턴으로 내면 연기를 보여주려 노력한다. 그에게는 꽃미남 배우들의 전유물인 살인 미소도 없고, 오그라질 정도의 여성성이나 이벤트도 없다 아직도 배어있는 마초적 표현 속에 그의 내면 연기를 삼입시켜 그나마 신선함을 보여주게 된다.

<내 강패 같은 애인>은 박중훈의 38번째 영화이다. 그동안의 액션과 코믹에서 일부 방향이 선회되어 아직껏 만나지 못한 그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는 박중훈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가 살아온 인생과 극중 캐릭터가 만나는 방식을 보여준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 끝내 보여주지 않고 영화는 끝이 나지만 서브텍스트를 통해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III. 영화 <내 강패 같은 애인>에서 인물 표현 방식 분석

1. 메소드 액팅(Method Acting)을 위한 준비

영화 <내 강패 같은 애인>에서 박중훈은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될 ‘동철’의 거칠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박중훈은 민간인한테도 맞고 다니며 건달 망신은 혼자 다 시키는 강패 ‘동철’ 캐릭터에 몰입했고, 좋아하는 술까지 끊어 가며 혹독한 다이어트로 체중을 6kg이나 감량했다. 하지만 평상시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어서 탄탄한 몸을 만들어 강패의 날렵하고도 거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주먹보다 입만 산 삼류 강패 ‘동철’이지만 맞는 장면조차도 보다 생생하고 리얼해야 한다면 촬영 전부터 액션 스쿨에서 무술감독의 특훈 아래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JK필름 윤제균 대표가 박중훈 선배를 추천 했고 박중훈 선배는 20살에 데뷔 했고 26년째 연기를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영화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직접 만나 봤더니 의외로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젊은 이미지라 영화에 맞겠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만약 이 영화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에 맞게 몸도 변화 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동철 역할을 박중훈 선배가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하와이로 날아가 P.T(운동)를 받고 동철에 맞는 캐릭터로 배역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신을 해왔다[3].”

김광식 감독의 말처럼 영화 속의 캐릭터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는 바로 하와이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고, 영화 속의 캐릭터와 동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런 노력으로 이미 스크린 속의 캐릭터와 그는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삼류 강패의 무기력한 삶

연기를 하면 실제로도 역할과 비슷해진다고 하는 박중훈은 삼류 건달의 느낌을 더욱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외모적으로도 짧은 머리와 까무잡잡한 피부, 운동복 패션에 걸렁한 강패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을 선보인다.

강패 역할을 가장 많이 맡아 열연을 펼친 바 있는 그가 <내 강패 같은 애인>에서 삼류 루저 강패 ‘동철’을 맡아 연기 데뷔 25년 만에 등부터 가슴팍까지 이어지는 용문신을 했다.

용문신은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입만 살았지만 체면만은 지키고 싶은 ‘동철’ 캐릭터를 알게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박중훈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완성된 용문신에 흡족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2000년도에 들어 처음으로 맡는 강패 역할을 위해 배우 인생 처음으로 용문신까지 한 박중훈, 진심과 열정을 담아 열연을 펼친 박중훈이 탄생시킬 또 하나의 삼류 건달 캐릭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어쩌면 영화 속의 캐릭터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미 그는 캐릭터와 같은 사람이 되어있는 진정한 메소드 액터(Method Actor)가 되어버린 것이다.

영화의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면 그의 인물 표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동철과 세진의 첫 만남의 장면이다.

세진(정유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지하방 입구에서 동철(박중훈)과 만난다. 세진이 동철에게 인사를 하지만 무시하고 나가다가 계단 위에 방에 넣지 못한 짐들 사이에서 세진의 이력서를 보게 된다. 동철은 보자마자 “너 취직 못했나?”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취직 이야기보다 동철의 오지랖 넓은 동네 건달 캐릭터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내 강패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4]

동철이 “이사 하는 애들 어디 갔냐?” 라고 물으니 “돈 더 달라고 하잖아요.” 라고 답을 하자 “돈 더 뜯어 내려고 했구만?” 이라고 말을 한다.

여기서 동철은 강패처럼 무섭기보다는 간죽거리는 동네 건달 캐릭터를 보여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동철은 “여자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다 옮기라고 말이야?” 라고 하자 세진은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며 속으로 이 사람이 도와 주려하나? 라는 표정을 짓지만 동철은 “이삿짐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이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나버린다.

시나리오에서 보면 “이삿짐 새끼들. 하여튼. (하고는 그냥 가버린다)[5].” 이라고 되어 있지만 박중훈의 애드리브(ad lib)로 “이삿짐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며 박중훈의 캐릭터는 더욱 짙어 보인다. 처음 동철과 세진이 만나는 장면에서 도와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까지 말을 하고 떠나 버리는 동철의 동네 건달 캐릭터와 오지랖은 넓지만 막상 자기 서브텍스트를 충분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 장면에서 세진이 면접을 보러 나가려

는데 밖에 두었던 우산이 없어졌다. 할 수 없어서 그냥 비를 맞으며 뛰어나가는데 동철이 자신의 우산을 들고 있었다. 세진은 우산을 달라며 뺏으려 하자 동철은 우산을 주지 않는다.

그림 2. 내 강패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4]

동철의 눈빛이나 행동을 통해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가 우산을 가져가면 내가 비를 맞아서 안 된다는 식의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삼류건달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3. 현실과 이상의 갈등과 부조화

그의 캐릭터에 맞지 않는 넥타이와 양복은 삼류 강패지만 새로운 변신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차츰 세진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양복도 입고, 세진을 위한 난동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겉모습은 동네 삼류 강패지만 마음은 이미 세진에게 많이 건너가고 있으며 그 삼류인생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서브텍스트를 보여준다.

세진이 방은 벽면에 빼곡하게 취업 자료를 붙여 놓음으로써 취업 준비생이라는 상황을 보여준다. 더불어, 비즈 커튼을 달고 스탠드와 쿠션 등도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활용함으로써 여자 방이라는 게 물씬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그에 비해 별다른 가구와 소품 없이 행한 동철의 방은 건조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책장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가 꽂혀 있다. 영화 속 장면에서도 교육방송을 보는 설정이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캐릭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공부를 해서 현실 상황을 탈출해야한다는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중반부에 여러 차례 보여 주는데 가끔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로 나타나며 이런 동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담고 있다. 특히 세진의 고향집에 같이 가는 신에서는 더욱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그림 3]은 얼떨결에 세진이 부탁으로 가짜 남자 친구가 되어 고향에 내려가지만 이미 그의 내면에서는 세진의 남자 친구가 되어있으며, 현실과 부조화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분노를 느끼는 서브텍스트를 느끼기에 충분한 장면이다.

그림 3. 내 강패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4]

동철은 세진의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외위간 동철의 가족 사향을 말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바꿔 말하는 등 연달아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자 세진의 아버지는 당황해 하고 동철은 실수했다는 걸 인지하고 자책을 하게 된다.

이런 거짓을 말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하면서 분을 삭이는 그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림 4]는 세진이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동철은 그게 너무 불쌍하고 그전에 잘해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향으로 끌려 내려간 세진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도전해보라고 말한다.

그림 4. 내 강패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4]

그는 세진이 회사에 취직이 되어 그녀만이라도 삼류 인생을 탈출시키게 하려는 동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는 면접을 보는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며 세진이 늦게 오는 걸 면접관들이 모르게 유도한다. 난동을 피우다 면접관들에게 불잡히자 무릎 꿇고 자신의 속마음을 말한다. 이 장면에서는 그동안 동철이 세진에게 못해줬던 미안함과 순수한 마음이 들어나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는 동철의 독백 같은 긴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의 촬영은 먼저 마스터 쇼트를 촬영 후 다른 쇼트들로 똑같은 연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영화에선 편집을 위하여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할 경우가 많다. 이때 동작의 형태와 스피드, 강도와 리듬 등을 완벽하게 일치시키지 않으면 편집이 불가능하게 되며, 설사 억지로 편집해 놓는다 할지라도 동작이 튀거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여 관객의 불만을 사게 될 것이다 [6].

그러나 박중훈은 연기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의 많은 영화 촬영의 반복으로 이런 편집의 특성까지도 이해하며 부조화된 장면을 완벽하게 더블 액션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그림 5. 내 갱패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4]

[그림 5]에서 보면 늦게 서울에 도착하여 면접 보는 회사에 들어오는 장면에 동철은 세진을 보자 갑자기 내 발로 걸어 나갈 테니 놓으라고 말을 한다.

동철은 끌려 나가는 것이 창피해 내손으로 나갈 것이라 말하지만 세진의 눈을 보며 ‘이제 시간 끌어 났으니가 들어가서 봐도 될 거야, 잘 봐.’ 라는 안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스타니 슬라브스키는 신체적 행동 방법론을 통해 ‘내재된 의미’ 즉 서브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나리오를 기본 바탕으로 작업하는 영화는 연극에 비해 대사와 지문 모두 함축적이다. 따라서 배우는 대본에 나타난 일차적인 사실을 넘어 구체적인 형상화를 이루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 즉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찾아야 한다[7]. 이처럼 박중훈은 내재된 의미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올바른 서브텍스트를 찾아내고 카메라에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4. 눈빛 하나로 보여주는 서브텍스트

동철은 그동안 세진을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현실과 이상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부조화를 느끼면서 한동안 지낸다.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또 다시 삼류 갱패로서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를 괴롭히던 전직 형사를 죽이기 위해 불러내지만 결국은 자신이 칼에 찔려 피범벅이 되어 나오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 이런 비참함과 조직의 막내 재영을 위해 때리고 떠나보내려는 착한 마음이 드러나는 동철이 거친 남성 이미지로 회귀하는 듯 보이나 그의 고뇌와 우수에 찬 내면 연기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림 6][그림 7]은 동철이 조직을 괴롭히는 전직 강력계 형사(이하 형사)를 죽이기 위해 형사를 불러내는 데, 조직에서 동철 대신 조직의 막내 재영이 칼을 들고 찾아가 자신이 형사를 죽였다고 자수 하라고 했고 재영은 알겠다며 동철을 쫓아온다.

그림 6. 내 갱패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4]

동철은 자신이 전에 두목 대신 교도소를 다녀온 적이 있고, 재영이 어떻게 될지 알기에 동철은 갑자기 재영

에게 화를 내고 동철은 재영에게 꺼지라고 말을 한다. 그러자 재영은 당황하며 동철에게 잘 할 수 있다며 믿어 달라고 계속 달라붙는다. 그러자 동철은 재영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때린다.

그림 7. 내 깡패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4]

동철이 깡패이지만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다. 재영이 싫어서 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브텍스트로 재영이 자신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재영을 못 따라오게끔 때리는 행동과 눈빛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동철 역을 박중훈은 완벽하게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영화 속의 동철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다.

[그림 8]에서 그가 칼에 찔려 피범벅이 된 상태로 괴로워하며 무언가를 응시하는 그의 표정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절절한 삼류 인생의 고뇌와 애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회한,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마음까지도 담겨져 있다. 바로 박중훈식의 인물 표현 방식의 백미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 내 깡패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4]

배우의 신체적 표현 중 얼굴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 그중 특히 눈은 노동자의 흔들림 눈에

고이는 축축한 눈물 눈의 각도와 템포 등, 배우는 눈으로 수많은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관객은 영화에서 클로즈업된 배우의 얼굴과 눈빛을 통해 동경, 황홀감, 질투, 슬픔, 분노 등의 감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8].

이처럼 카메라 연기에서는 클로즈업 쇼트로 스크린을 통해 배우의 표정이 자세하게 드러나기에 얼굴에서도 자신의 표현 의사가 전달되어야 한다. 박중훈은 여기에서 보면 클로즈업 쇼트의 정확한 역할을 알고 디테일하게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광식 감독은 제일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 이렇게 얘기 했다.

“이 장면은 굳이 디렉션이 없었지만 박중훈 씨는 처음에 동철이 죽기를 바랐는데 감독인 내 입장은 죽으면 안 된다 했고, 박중훈 선배는 죽고 싶으니까 눈을 감는다. 처음에는 바스트 사이즈로 만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보충 촬영이 필요해서 원래는 영화를 다 찍고 마무리 파티를 하는 날이었는데 클로즈업 샷이 필요한 거 같아 촬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중훈 선배는 그 상황에 그 감정을 다시 올리기가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3].”

IV. 불가능한 거리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기 기술

연기자의 자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멘탈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멘탈적인 면에서 배우의 연기는 몸과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 긴장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이완시킬 수 있느냐가 흔히 좋은 배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우도 사람인만큼, 성장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자신만의 행동이나 강박관념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자신을 움아매는 스스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백지 상태가 되어야 그 위에 새로운 인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말는 배역에 따라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느낌을 주는 배우들은 특히 이러한 감각이 출중하거나 잘 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중훈은 그런 감각이 누구보다

출중한 배우라고 볼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카메라 연기의 성패는 영화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촬영이 시작되면 배우와 영화 기술은 서로를 인식하며 마치 경쟁자라도 된 것 같은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카메라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화 기술은 크게 카메라, 편집, 사운드 등의 주요소와 그 이외에 감독, 조명, 시나리오 등의 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영화의 요소들이 배우와 만났을 당시 배우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배우의 연기는 분명히 바뀐다. 그러므로 배우는 각 쇼트에서 사용된 영화 기술에 알맞은 연기를 해야 한다.

박중훈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자세와 능력을 보여준다.

“배우 박중훈은 카메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디지털이 일반화 된 요즘 시대 감독들이 쓸 것인지 못 쓸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박중훈은 그에 맞게 연기를 한다. 카메라, 조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에 어떤 각도에서 찍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부각 될지를 아는 배우이기에 요즘 나오는 배우들은 카메라, 조명을 신경 안 쓰고 마음껏 연기를 하는데 에 비해 박중훈은 최적의 공간을 찾아 잘 연기를 한다는 점에 놀랐다[3].”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리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화 미디어의 속성에 맞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영화에 적합한 배우인 것이다. 박중훈은 이 불가능한 거리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화 미디어의 속성에 알맞은 연기를 한다.

V. 나가며

영화배우 박중훈의 연기에 대해 분석해보며 나름대로 그의 연기 패턴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2010년에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온 작품 <내 강파 같은 애인>에서 주인공 동철 역에 대한 인물 표현 방식을 몇 가지 화면을 캡처하여 설명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배우들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극중 캐릭터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이론이 현대 연극기법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연극·영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을 습득한 배우를 메소드 배우(Method Actor)라고 하며, 이는 극중 캐릭터의 내면에 숨어 있는 감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배우,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를 지칭한다. 박중훈이 바로 그런 배우이다.

그는 영화 속 캐릭터와 동일시하기 위하여 몸도 만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등 촬영 전에 이미 캐릭터와 하나가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행동에 내재된 의미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올바른 서브텍스트를 찾아내고 카메라에서 표현을 하는 진정한 메소드 배우(Method Actor)라고 할 수 있다.

국민배우 박중훈의 연기를 분석하며 그의 연기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김광식 감독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실으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박중훈씨는 이번 촬영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배우의 자리에 있는데도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15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정유미라는 배우와 앙상블을 이루는 배우다. 힘을 빼고 사실성을 주려 많이 노력했던 거 같아 너무 고맙다[3].”

참 고 문 헌

- [1] 김영석, 조진, 조태영, 이미진, *시네마공장의 희망 한국영화 길을 나서다*, 한길사, 2007.
- [2] 이윤택, *살아 있는 동안은 날마다 축제*, 샘터, 1999.
- [3] 김광식 감독 인터뷰, *충무로 대한극장 앞*, 2012.06.18.
- [4] *내 강파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2010.
- [5] 영화 ‘내 강파 같은 애인’(My Dear Desperado) 시

나리오, p.12, 2010.

[6] 이아영, *무대연기와 영화연기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p.64, 2010.

[7] 권현수, *한국영화의 연기 양식적 특성고찰-1990년대 후반이후 나타난 신체성 강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p.40, 2003.

[8] 김연주, *영화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연기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p.60, 2012.

저 자 소 개

어 일 선(El-Seon Eo)

정회원

- 2001년 2월 :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10년 2월 :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 영상매체, 공연예술

정 민 영(Min-Young Jeong)

준회원

- 2012년 2월 : 청주대학교 영화학과(영화학사)
- 2012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 영화 연기, 카메라 연기, 공연 예술